

■ 주요 기사

○ 금융공공화물 및 현대차 노조 파업 관련 (8건)

동아	현대차그룹 노조 “긴급조정권 발동땀 총파업” 임종룡 “성과연봉제, 양보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
매경	화물연대 “10일 총파업”...정부 “면허취소” 초강경
한경	기로에 선 고임금 귀족노조 [기로에 선 고임금 귀족노조] 연봉 1억 귀족노조도 유모차 계속 타게 놔두는 ‘늙은 노동법’ [기로에 선 고임금 귀족노조] 화물연대 10일부터 총파업
경향	[70창간기획-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1)서울 장기 농성장 13곳서 길을 묻다 [단독]“생산량 줄여 금속노조 강성 조합원 내보낸단다” ‘유령노조 해산’ 대창, 노조 와해 정황 녹취록

○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 관련 (1건)

동아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15% 올라 8197원
----	--

○ 대우조선 희망퇴직 관련 (1건)

조선	대우조선 1000명 희망퇴직... 전체 직원 10% 줄인다
----	--

○ 갑을오토텍 직장점거 관련 (1건)

한경	90일째 노조에 점거된 갑을오토텍 공장
----	---------------------------------------

■ 주요 칼럼 · 사실

○ 노조 파업 관련 (4건)

매경	[사설] 물류선진화까지 반대하고 파업나선 화물연대
한경	[김정호 칼럼] 노동법이 귀족노조 파업 방조하고 있으니
한겨레	[사설] ‘사회적 대화’조차 거부하는 정부, 어찌자는 건가
경향	[오민규의 노동과 삶]노동조합법이 아니라 파업금지법

○ 2016 노사문화 대상 관련 (1건)

중앙	‘노사 신뢰’로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한 기업 많아
----	---

○ 가슴기 특위 관련 (1건)

중앙	[취재일기] 피해 가족을 위로 못한 가슴기 특위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동	제목	대우조선 1000명 희망퇴직... 전체 직원 10% 줄인다 B5면
		내용	대우조선해양은 10년차 이상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전체 직원 10%에 육박하는 1000명 정도를 내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중앙	노동	제목	성향 다른 복수 노조 '스킨십'...회사는 고용 보장해 성장 E7면
		내용	동원시스템즈(주)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2016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사문화대상은 노사간 상생·협력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모범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제목	직장 만족도 높이려 노사가 벤치마킹 출장 E7면
		내용	국무총리상, (주)에스엘미러텍은 노사가 공동으로 조직진단에 들어가 몰입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사는 곧장 벤치마킹팀을 꾸려 일본 토요타 등 해외와 국내 다른 회사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에 들어갔다.
		제목	노조가 재해 예방 팔 걸어...6002일 무사고 E7면
		내용	포스코 협력회사인 (주)건우에는 96년 노조가 설립되고, 2008년 이후 분규 한 번 없었다. 노조가 나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펴면서 '6002일 무재해'라는 대기록도 작성했다
		제목	'노사 신뢰'로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한 기업 많아 E7면
		내용	이영면 동국대 교수, 올해 노사문화대상은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일터를 찾습니다"라는 모토 하에 대기업 9곳, 중소기업 12곳, 공공기관 6곳 등 모두 27개 기관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저성장경제, 경기침체, 구조조정과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가려면 노사협력은 필수
		제목	18년 동안 분규 한 번 없어...영업익은 15배로 E7면
		내용	대통령상- 한국항공우주산업(주), 1999년 정부 주도로 삼성·대우·현대 3사의 항공사업부를 통합해 설립. 부채비율 593.7%의 회사가 궤도를 찾아 순항하게 된 데는 노조의 역할이 컸다. 3사 노조가 통합 후 18년간 무분규로 매출은 4.1배(7155억→2조9010억), 영업이익은 15배(179억→2857억)
		제목	작년 성과급 555억...직원 참여 임원회의도 E7면
내용	국무총리상, 유한킴벌리의 노사문화는 말이 필요없다. 그만큼 널리 알려져있다. 1970년 창사 이래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었다. 20년 동안 무분규다.		
환경	환경	제목	[취재일기] 피해 가족을 위로 못한 가습기 특위 면
		내용	여야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덮지 않는 것은 다행. 특위 연장, 환경노동위원회에 이관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국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고 있다는 믿음 보여주길.

매체명	주 제	내 용	
동아	노동	제목	현대車그룹 노조 “긴급조정권 발동엔 총파업” A2면
		내용	사측 “현대車 이외 파업은 불법”. 與 “파업중단 촉구 결의안 추진”. 野 “정부 강경대응 묵인 않을것”
		제목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15% 올라 8197원 A20면
		내용	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시급(時給) 8197원으로 확정. 정부가 고시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
		제목	임종룡 “성과연봉제, 양보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 B4면
내용	성과연봉제에 반발하는 금융노조가 2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		
매경	노동	제목	화물연대 “10일 총파업”…정부 “면허취소” 초강경 A1면
		내용	화물연대본부는 10일 0시부터 ‘화물운송 시장 발전 방안’에 반대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예정. 정부도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힘
		제목	[사설] 물류선진화까지 반대하고 파업나선 화물연대 A35면
내용	화물연대는 소형화물차량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물류선진화 반대를 명분으로 파업돌입 예정. 서비스업 활성화로 일자리도 늘게 됐는데 반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한경	노동	제목	기रो에 선 고임금 귀족노조 1면
		내용	현대자동차 노조가 78일간 벌여온 파업을 5일 중단했다. 지난달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공공연맹이 시작한 노동계의 연쇄파업 가운데 철도노조만 남았다
		제목	[기रो에 선 고임금 귀족노조] 연봉 1억 귀족노조도 유모차 계속 타게 놔두는 ‘낙은 노동법’ 3면
		내용	금융·공공부문 파업으로 지난 7~8월에만 근로손실일수(파업참가자 수×파업시간/하루 8시간)가 98만일에 달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총 근로손실일수는 105만9000일로 이미 지난해(44만7000일)의 두 배를 넘어섬.
	제목	[기रो에 선 고임금 귀족노조] 화물연대 10일부터 총파업 3면	
	내용	화물연대가 오는 10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은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2012년 5일간 파업한 이후 4년여 만. 철도파업으로 화물운송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육상운송마저 멈춰 서면 물류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	
	제목	90일째 노조에 점거된 갑을오토텍 공장 3면	
	내용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이 5일로 90일째 직장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의 노사관계는 노조 보호에 치우친 한국의 노동법 제도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제목	[김정호 칼럼] 노동법이 귀족노조 파업 방조하고 있으니 6면		
내용	상위 10% 소수 귀족노조 파업이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음. 노사 간 교섭력이 지금처럼 불균형하다면 영원히 해소될 수 없음. 대체근로 가능케 해 회사에도 노조와 대등한 힘을 쥐야 함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겨레	노동	제목	“성과연봉제는 평생인턴제…동기들 밟는 경쟁 평생 하라니” 3면
		내용	성과연봉제는 ‘평생인턴제’라고 생각한다. 인턴 중 80%만 최종합격했다. 동기들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을 평생 해야 한다는 게 싫다
		제목	[사설] ‘사회적 대화’조차 거부하는 정부, 어쩌자는 건가 27면
		내용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촉발된 노동계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 역시 같은 태도를 고수
경향	노동	제목	[70창간기획-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1)서울 장기 농성장 13곳서 길을 묻다 8면
		내용	특별취재팀은 지난 8월 서울의 장기 농성장 13곳을 찾았다. 22년 만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때다. 노동자가, 농민이, 장애인이 잔뜩 달궈진 거리로 나와 끝 모를 싸움을 이어갔다. ‘자발적인 가난과 고난’을 감당하는 이들은 지금이 시대의 ‘장기수’ 같아 보였다.
		제목	[단독]“생산량 줄여 금속노조 강성 조합원 내보낸단다” ‘유령노조 해산’ 대창, 노조 와해 정황 녹취록 20면
		내용	최근 유령노조의 해산이 결정된 시화공단의 동(銅) 압연품 제조업체 대창이 금속노조 대창지회를 와해시키려 한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금속노조는 “유령노조를 내세워 임단협 교섭을 거부하던 회사가 유령노조 해산 결정이 나오자 이제는 금속노조를 파괴하려 한다”며 반발
		제목	[오민규의 노동과 삶]노동조합법이 아니라 파업금지법 36면
내용	임금 아니면 파업을 못하게 만들어놓고, 임금 내걸고 파업한다고 비난한다? “노동조합법이 아니라 파업금지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누구나 노조를 만들고 가입하고 싸울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논의 필요		

<끝>